외국인 매수에 '코스피 급등' 코스피지수가 16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2% 가까이 오르며 2540선에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1.97%) 오른 2543.03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2018년 2월 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KB국민은행 '디지털셀프점 플러스' 오픈

돈암동 지점에 디지털요소 강화

KB국민은행은 서울 돈암동 지점에 디지털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 코너인 '디지털셀프점 플러스(Plus)'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셀프점 플러스에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적용된 뉴 디지털(New Digital) ATM, 365일 고객 스스로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한 STM(Smart Teller Machine),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등의 다양한 디지털기기가 배치된다. 또한 스마트매니저가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뉴 디지털 ATM은 ▲심리스(Seamless)한 디자인 적용 ▲자동 개폐 바이오인증 모듈 장착 ▲42인치 대형 모니터 탑재 등 기기 외관 변화를 통해 고객의 이용 즐거움과 디지털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또한 사용자의 이용 패턴 분석, 심리적 측면 등을 연구해 남녀노소 누구든 쉽고 빠르게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화면 구성을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뉴 디지털 ATM은 KB금융 여의도 통합신사옥 1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간 유사한 형태의 ATM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면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뉴 디지털 ATM을 도입했으며 디지털셀프점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대형사 예금금리 인하 릴레이에…

저축銀 연말 고금리특판 사라진다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통장 연 1.5%→1.3%
OK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1.7%로 인하

대형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매년 연말마다 출시되는 고금리 특판 예금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사를 위주로 주요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는 지난달부터 예금 금리를 여러번 하향 조정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금리를 연 1.5%에서 1.3%로 0.2%포인트 인하했고 OK저축은행 또한 지난 1일부터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를 연 1.7%로 내렸다.

계속되는 예금금리 인하 릴레이에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에서 11~12월이면 내놓는 특판예금 또한 올해는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이 올해는 연말 고금리 특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보통 연말에는 저축은행 고객의 예금 만기가 몰린다. 이에 따라 고객 유치를 위해 저축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려 특판을 진행, 단기간에 수신액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저축은행의 수신액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고금리 특판 또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축은행의 예금을 유치하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특판을 통한 수신액 확보가 필요치 않게 됐다.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동시에 저축은행업계의 모바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자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또한 특판 실종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퇴직연금 예금상품 판매를 시작,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안정성 덕분에 현재 퇴직연금 예적금 총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통상 저축은행의 수신 상품은 부채로 잡히지만 퇴직연금은 돈을 길게 묶어둘 수 있는 데다 판매, 마케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야말로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높여 수신액을 확보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며 "올해는 아직까지 고금리 특판 계획이 없고, 다른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71조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0%대로 떨어지면서 최고 2%대까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수신액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발발 전인 지난 2010년 4월 저축은행 최대 수신액은 76조984억원이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정액적금' 출시

하나은행이 16일 개인 퇴직연금(IRP) 손님을 위한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전용 상품인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하나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마련된 금융권 최초의 퇴직연금 전용 '정액적금' 상품이다.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입금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자율이 서로 다르게 가입되는 형태인 반면,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최초 확정된 만기와 이자율이 입금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가입기간 중 입금일에 관계없이 최초 약정된 이자율이 제공되고 금리 하락시기에도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개인퇴직연금(IRP) 신규가입 손님 및 추가입금 손님에 한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1회 입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11월 기준 판매 예정이율은 2.5%(세전수익률)로 한도 소진시 판매가 조기 중단될 예정이다.

박의수 연금신탁그룹장은 "이번 '정액적금' 상품 출시로 입금 시마다 만기 및 이자율이 상이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함이 해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금융, 8년 연속 美 DJSI 월드지수 편입

전세계 시총 상위 2500곳 대상 실시
지속가능금융 등 세계 최고수준 평가

신한금융그룹은 미국 다우존스가 지난 14일 발표한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8년 연속 편입됐다고 16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올해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인 방콜롬비아(콜롬비아), ANZ(호주), BNP파리바(프랑스), 산탄데르(스페인)를 비롯한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지속가능금융, 포용금융, 정보 및 시스템 보안 등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고객과 사회 그리고 신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책임 있는 성장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미래를 향한 투자 등 3대 지향점을 바탕으로 '2020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DJSI 8년 연속 편입은 그룹 미션인 금융의 본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노력이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로 카본(자산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감축),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고객에게 인정받고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일류(一流)신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30일 K-IFRS 유튜브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은 K-IFRS 제1116호(리스), 제1103호(사업결합) 등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되는 핵심감사사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점검 결과를 소개하고,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마이급여클럽 가입 이벤트

최초가입 고객에 '스타벅스 쿠폰'

신한은행은 '마이(My)급여클럽' 가입자 50만명 돌파 기념 '마이급여클럽 첫 고객 100% 스타벅스 드림(DREAM)'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마이급여클럽 최초 가입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의 마이급여클럽은 기존 직장인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급여이체 혜택을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로 넓히며, 급여의 개념을 고객중심으로 다시 정의해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급여클럽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는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뮤지컬·콘서트·전시회 관람 이벤트인 문화라운지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급여클럽 가입으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급여이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최초 가입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님이 마이급여클럽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이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SOL)앱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그리고 신한은행 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